한국 예술문화운동의 특성과 흐름

이 영 미

이영미 선생님은 1980년대부터 민중문화운동에 헌신하였으며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노래이야기 주머니』, 『재미있는 연극 길라잡이』 등이 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한국의 문화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화운동은 크게 몇 개의 구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계층별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그 운동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지식인운동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 중 지식인이라는 집단은 좀 독특합니다. 전통적으로 지식인이란 자신의 계급기반과는 다소 무관하게 사회 각 부분에 필요한 지식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지요. 말하자면 각기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고, 그 전문 분야는 여러 계층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운동이라고 하면, 지식인들이 무리 지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이렇게 지식인의 전문 분야별의 활동이 전 사회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분야별 분류도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예술문화운동, 종교운동, 교육운동, 출판운동 이런 식의 분야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문화운동 그 중에서도 예술문화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예술문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문화운동이란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제가 학교를 떠난 지 너무 오래 돼서, 요즘 사정을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학교에서 이런 말을 씁니까? 혹은 학교에서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합니까? 주로 집회 때 보게 되는 율동패나 노래패 같은 선동대 같은 것이 떠오르시지요. 요즘은 탈춤반이 없어진 학교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탈춤반이 없는 학교 있으면 한 번 손 들어보실래요? 꽤 많군요. 예전에는 대학에 탈춤반 없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민중가

요 부르는 노래패 없는 학교 손들어 보세요. 역시 그런 학교들도 꽤 있군요. 그럼 소위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에는 뭐가 있나요? 락 밴드? 얼터너티브 락 하는 밴드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클래식 기타반? 그런 동아리들까지 모두 예술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예술 활동을 하는 동아리 모두를 예술문화'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술문화운동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데모할 때 혹은 집회장에서 부르는 노래? 혹은 그곳에 걸려 있는 걸개그림? 걸개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학교에 걸개그림이 걸려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있어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의 잔존물들일 겁니다. 90년대 학번들은 대학에 그려진 '민족해방' 이렇게 써 있는 커다란 벽화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유하는 톤으로 '팔뚝 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벽화를 보면 근육질은 과장되어 있고, 우직스러운 모습에 빨간 머리띠 묶은 그런 인물들로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예술문화운동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술문화운동이란 이렇게 집회나 시위에 필요한 문화, 예컨대 선동대 같은 건가요? 이런 선동대들이 하는 율동이나 노래 혹은 소설, 시, 연극 같은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창작하고 유포하는 활동을 예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 하고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지시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술문화운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예술문화를 만드는 것이 곧 예술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예술

문화운동의 전체가 아니라, 단지 한 측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니까요. 스튜디오 안에서 그려져 전시회를 통해 발표되는 그림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밖에 걸려 있는 벽화의 팔뚝 맨과 빨간 머리띠가 잘 보이니까요. 민중가요 중에는 조용하고 서정적인 노래도 많은데,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집회장에서 부르는 노래만 들리게 마련이지요. 사실 학생운동, 노동운동 같은 것도 빨간 머리띠와 쇠파이프와 지게차로만 연상되지요? 이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예술문화운동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술문화운동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술문화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술문화'는 무엇이고 또 '운동'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질문은 더 어렵지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번역합니까? sports? movement? campaign? campaign이라고요? 아니에요. movement입니다. 그럼 campaign하고 movement는 어떻게 다르죠?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자면 비슷해 보일 때가 있죠. 대중 앞에 서서 뭐라고 주장하고 할 때에는 말이죠. 그러나 본질은 아주 다릅니다.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몽입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고 대중들에게, 무엇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캠페인'은 홍보를 주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movement'는 홍보가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일정한 역사적인 목표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movement의 한 활동으로 campaign

이 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campaign'이 아니고 'movement'를 말하는 것입니다.

'movement'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정한 역사적 목표, 운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성입니다. 캠페인은 조직을 안 만들고 혼자 해도 되는데 운동은 반드시 조직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무리 지어져 상당한 조직력을 가졌을 때만 운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 한두 명이 외칠 때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자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뭔가 집단적으로 주장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운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그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때 비로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movement'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예술문화운동은, 예술을 이러저러하게 바꾸자는 일회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성과 지속성과 역사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동임이 분명합니다. 역사적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목표보다는 좀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본다면 예술문화운동이란 예술문화를 바꾸어 좀더 건강한 예술문화 풍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간들이 좀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역사적인 커다란 움직임을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운동 주체의 대부분은 예술인이고, 다른 계층운동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비전문인으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인의 역할과 비전문이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전문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전문인은 그 예술활동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예술작품을 창작유포하는 사람이고, 비전문인은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문인과 비전문인을, 예술문화운동 조직 내에서 갈라내는 문제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양한 운동의 조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만 해도,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활동이 계급운동인가 부문운동인가 하는 것을 가르는 문제가 꽤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예컨대 노동자 노래패의 활동은 노동운동인가 예술문화운동인가 하는 문제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중요한 결정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전문예술인들이 예술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예술문화 분야의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 수용자운동이 생겨나면서(예컨대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운동' 같은 것 말이죠), 그 판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즉 예술인이 아니면서 특정 계급운동에는 속하지 않은 채 예술문화 분야의 수용자라는 정체성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이죠. 이 경우는 분명 예술문화운동이라고 해야 하고, 이들 수용자가 분명히 운동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술문화운동은 자신이 예술문화의 주체로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예술 분야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활동, 예술문화를 좀더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술문화란 무엇이냐. 제가 예술 뒤에 문화를 붙이는 거 불편하고 이상하죠? 예술이면 예술이고 문화면 문화지 왜 두 단어를 붙일까, 이런 생각 하셨죠?

우리는 문화라는 용어를 고급예술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페라를 보고 '나 문화생활 했어' 하는 겁니다. 또는 클래식음악을 듣거나 독서량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 문화인이네'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문화 중에서 극소수의 부분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를 넓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생물학적 부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의생활문화, 주거활동문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말버릇, 언어, 종교, 예술, 혹은 정치문화라든가 교육 등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입니다. 즉 인간의 비생물학적인 부분을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는 틀로 보게 되면 다 문화가 되는 거지요. 예술은 이러한 문화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술이 문화의 한 부분임이 분명한데도, 예술운동이라고 하면 예술계 내의 협소한 범위에서의 활동으로 끝나버린다는 사고에 젖기 쉽습니다. 근대 이후 예술이라는 분야가 지니는 묘한 폐쇄성 때문이지요. 예술은 천재의 것이라는 생각도 그렇고, 일반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즉 예술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예술계 내에서 예컨대 문단, 연극계, 무용계 내에서 그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는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술문화, 예를 들어 음악문화를 폭넓게 생각하면 클래식공연장에서 듣는 음악만이 아니라 KBS라디오 FM을 틀어서 듣는 것도 음악이고 대중음악도 음악이고 심지어 꼬맹이들이 피아노 교습소에

서 피아노를 치는 것도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나오는 벨소리도 음악입니다. 혹은, 지하철 4호선인가요? 열차에 들어오면 '열차가 도착하오니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할 때 '미솔솔 미솔솔 라라라라'(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음악이 같이 나오지요? 그 노래 들으면 우린 비켜나지요? 그것도 하나의 음악문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자전거>라는 노래를 배우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뒤로 물러나라는 것인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것이 비켜나라는 신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음악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음악문화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문화의 핵심은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했는데, '예술'이란 말 뒤에 '문화'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예술이 문화의 한 부분임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즉 예술을 바꾸는 예술운동은, 소수 예술계 내에서 예술인끼리 고상한 얘기 나누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예술적 요소들까지 폭넓게 바꾸어 가는 운동이며, 그로써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가치체계의 변화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문화가 왜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체계일까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는 것, 남자는 목에 뭔가를 매야 단정한 것이고, 여자의 아랫도리는 다리 사이가 갈라지지 않은 치마란 것을 입어야 단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유행을 따라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곧 생활양식이자 우리의 가치체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으면 문화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 오빠가 저보다 3살

이 많습니다. 76학번입니다. 여러분들 몇 학번이시죠? 03학번이죠? 02학번?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기업체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와달라고 해서 한 두 학기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오래간만에 대학이란 데 가 보고서 엄청난 문화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제일 놀란 것이 뭔지 압니까? 9월 개강 때, 오빠는 더운데도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갔는데 학생들은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예의 있는 옷이라는 사고방식이 다른 것이죠. 또 동남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밥 먹는 것 보면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찌개 그릇에 숟가락 넣으면서 퍼먹는 것 좋아하고, 심지어 요즘은 양푼비빔밥이라고 해서 같은 그릇의 비빔밥을 함께 먹기도 하고, 심지어 쟁반국수, 쟁반빙수까지 나오는 걸 보면, 하여튼 큰 것을 가운데 놓고 함께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결코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생활양식, 문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활양식이 다르면 일단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일차적 거부감을 걷어내고 차분히 본다면 이런 생활양식의 차이는, 다른 사회환경에서 발생한 각기 다른 삶의 방법이고,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화가 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화의 껍데기만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집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술문화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예술도 마찬가지로 고상하게 형식미만 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과 독특한 사고방식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문화운동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고고한 예술작품부터 친근한 삶의 예술적 요소까지 다 바꾸어 냄으로써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사고방식의 차이일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책상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만약 동양화 특히 수묵화 문화를 자신의 전통으로 삼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디자인계를 주름잡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책상 디자인이 흔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훨씬 자연적 질감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예술문화를 가져왔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술문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더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속 문화에 얼마만큼 지배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등교할 때 학교에서 음악 틀어줬어요? 보통 어떤 음악을 틀어 줬나요? 대개 '미해군 군가'를 들으면서 등교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미국 군인 문화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국악고등학교가 된 국악사양성소라는 곳에는 등교할 때 <수제천>을 틀어주었답니다. 지금도 국악고등학교 교가는 국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 군가를 20년 동안 들으면서 등교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국악을 들으면서 등교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국악이 교가가 된다는 것은 참 낯설지요? 그런데 왜 낯설어야 하지요? 왜 교복은 꼭 양복 스타일이어야 합니까? 한복이면 안 됩니까? 한복을 입고 초등학교부터 다녔다고 생각을 하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혹은 청바지로 된 교복을 입었다면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문화를 바꿔 나간다는 것은 단지 꼭대기 예술인들의 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문화 중에 예술적인 요소들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미감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술문화운동을 집회시위나 정치적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술문화운동에서 이러한 경향의 문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이런 것만이 보였을 정도로 지배적인 문화처럼 인식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술문화운동을 하는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예술문화운동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저만하더라도 83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예술문화운동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논쟁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차이와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갔죠.

문화주의와 문화도구주의에 대한 경계

예술문화운동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주의입니다. 80년대 중반에는 문화주의에 대한 경계가 많았습니다. 문화주의란 정치·경제 영역의 변화를 꾀하지 않은 채 문화적 변화만으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는 정치적인 억압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시계>의 70년대 말에 대학교에서 데모하는 모습, 혹은 학생운동에 대한 주인공의 고민 같은 것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영화 <동감>도 그래요. 김하늘, 유지태 나오는 영화 말입니다. 햄(HAM)을 통해서 과거의 여자와 미래의 남자가 만나는 영화이지요. 영화 속에서 과거의 여자가 살고 있던 공간이 1979년 말 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습니다. 영화에서도 박정희가 죽으면서 학교가 휴교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10.26 사건이 터지기 전 주인공들이 학교에 다닐 때 교내에서 학생운동이 벌어지는 풍경이 그려집니다. 거기서 김하늘이 좋아하는 남자가 김하늘 친구하고 연애를 하고 그 남자 아들이 유지태로 되어 있는 설정입니다. 김하늘이 좋아하는 남자가 데모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처럼 79년에 1학년을 다녔던 사람들은 정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생한 기억으로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1979년에 학교에서 데모 못했습니다. 아주 가끔 학생운동이 무지하게 센 학교들에서도 일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건당 평균 1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스크럼은 짜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 데모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유인물을 쫙 뿌리고 '학우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면 5분 만에 잡혀가고 데모는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상황종료예요. 스크럼? 못 짜요. 스크럼 짜려고 손 한번 든 사람, 소리 한번 외친 사람 모두 사진으로 찍어 다 잡아갔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제적이고 다시는 복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가담만으로도 제적과 감옥행이라면 누가 목숨 걸고 단순가담 하겠

습니까? 그러니 데모에 단순가담이란 게 없는 거죠. 황당하죠?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정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유신말기인 75년부터인데 특히 1975년 5월 22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김상진 장례식사건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내에 경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당시 학생들은 '김상진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이러고 있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조시 읽고 태극기 올리는 등 문화제 비슷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우르르 진입을 해서 거기 모였던 단순참가자까지 모두 다 잡아갔습니다. 물론 도망간 사람들도 있긴 했죠. 그 사건으로 단순가담자까지 한꺼번에 100명이 넘게 제적이 됩니다. 한 학교에서 100명이 잡혀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한 명도 복교를 못하고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제적생으로 있었습니다. 8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래시계> 2, 3회 부분에 교내에 '독재는 물러가라' 현수막이 붙어 있고 영화 <동감>에서도 '박정희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의 시위 장면도 그때 치고는 지나치게 격렬해요. 쇠파이프 같은 것이 없었을 땝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학사건'이 있었겠습니까. '학우여'라는 말에서 … 우여 … 를 못해 봤습니다. '학'자만 외쳤는데 잡혀간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코미디 같지만 실화입니다. 학교 안에 늘 형사가 포진해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정보과 형사들이 학생처를 자기네들 집 드나들듯 했고, 그리고 머리 짧게 깎은 행동부대 몇 중대가 학교 안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애들은 프락치입니다. 교실이나 써클실까지 들어오니까, 교수도 할 말을 못하고 학생들 토론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교수 다치고 학생들 다치니까요. 실제

로 잡혀가서 고초를 겪고 나온 교수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소련정치론 시험 볼 때였는데 시험 시작하고 10분쯤 되니까 뒤에 앉아 있던 5명 정도가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그 애들이 프락치였던 것이죠. 서클에도 프락치가 많았죠. 잘 구별이 안되니 아주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신입생 명부를 비교해 봐서 가려낼 수 있는 정도(신입생 명부에 이름이 없는 가짜 학생)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신입생 명부에 이름이 있는 경찰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건 못 잡습니다. 또 학생운동 하다가 프락치로 변신한 경우도 있는데 그들은 멀쩡하게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속했던 조직 기밀을 보고합니다. 감옥 안 가는 대신에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이니, 그들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곁가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암흑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인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뭔가 문화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덜 위험할 거 같고 운동한다는 생색도 나고, 좀 편하면서 감옥에 안가고 학적도 유지할 수 있고, 고생은 좀 덜하면서 운동한다는 마음의 위안도 얻으려는 생각에서 문화운동을 선택한 사람이 혹시 있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문화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외치겠죠. 자기는 정치운동이 겁이 나고, 용기가 없고 부담이 되서 못하는 거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활동이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면 정치운동도 안 되는 거고 문화운동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 문화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문화의 변화를 사회전반의 변화와 동등하게 여기는 사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만 변화시키면 정치경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버리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1920년대에 신채호 선생님이 썼던 용어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우리 민족을 문화주의로 이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합방부터 1919년 삼일운동 전까지는 무단정치의 시대로 교사가 칼을 차고 들어왔고 우리말로 된 신문은 모두 없앴던 시기입니다. 1920년이 되면서 우리말로 된 신문을 창간하고 1920년대 말이 되면 방송도 만들게 됩니다. 조선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를 허용해 줍니다. 왜 허용을 해 줬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더 이상 누르면 터지게 생겼다,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반항의 에너지를 문화 쪽으로 풀어 줌으로써 정치경제적인 불만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신채호 선생은 여기에 대해 반기를 들었죠. '웃기지 마라. 동아일보 이런 거에 약간 민족적인 기사를 몇 줄 실었다고 세상이 변하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무장투쟁이다. 실제로 무장투쟁해서 주권을 바꿔야지, 앞으로 교육을 잘해서 인재들을 키워내면 식민지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건 착각이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죠.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이 사용하신 용어를 빌려 온 겁니다. 문화주의에 대한 경계를 암울했던 정치경제적 억압의 시대에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착각,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의 관점, 즉 문화의 정치학 같은 것을 눈여겨보는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문화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계는 오히려 문화운동에 대한 지나친 폄하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안에

서 정치와 경제 영역에 대한 변화가 지니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에 대한 경시는 잘못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문화도구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를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거지요. 예컨대 '데모하는데 문화패 동원해 줄래?' 하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데모의 도구, 즉 민중가요는 오로지 데모하는데 필요한 거다, 민중미술이란 걸개그림만 있으면 된다, 풍물패는 데모하는데 북만 두들겨 주면 된다 등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학생, 노동자, 농민 그들의 특유의 문화를 어떻게 풍요롭게 이끌 것인가, 나아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목적을 갖지 못하고, 문화를 오로지 정치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문화는 문화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노래패가 '우리는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데모노래는 안 부를 거야, 선동대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선동대 하고 데모노래 부르는 것이 예술문화운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부분의 영역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문화의 수단화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을 요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패 사람들이랑 이야기 해보면 주로 운동권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동원해 다오'하면서 직속 선동대로 취급해 버리고 마는 사고방식, 그것 이외에는 어떠

한 문화정책도 갖지 않는 것, 이런 현상은 예술문화의 변화라는 장기적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운동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문화를 말로만 중요하게 이야기할 뿐, 정작 경제나 정치에 비해 그 중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지요. 절실한 문제라는 것에서, 꼭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풍요롭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엔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 것일 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못 말리는 문화도구주의가 하나 생겨났죠. 소위 말해서 '문화산업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쥬쥐라기 공원>을 수입한 가격이 한 해 자동차 수출을 해서 번 돈이랑 똑같다. 문화산업이란 자동차, 반도체, 못지않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영상산업과 게임사업을 빨리 육성시켜야 된다." 말은 맞지요. 하지만 이 사고방식이 극단으로 가면 예술문화의 궁극적인 발전과 변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통한 이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문화를 사고하는 방식에 빠지기 십상인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지금도 정치적인 이벤트 한다고 하면 가수를 부르지요? 옛날에 약장수들이 약 팔 때 곰이나 원숭이 데리고 와서 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 보려고 왔다가 약 사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벤트에 조수미나 윤도현 밴드가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려고 오지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지역축제 할 때도 '일단 사람들 모으려면 돈이 몇 천만 원 든다고 해도 설운도 정도는 와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 끌어 모으는 도구로

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를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쓰고 버릴 수 있는 정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아직도 지도층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지도층들이 문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예술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연극을 거의 본 것이 없습니다만' 이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당장 밥 먹는 것과 직결되는, 정치와 경제적인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의 훨씬 더 속 깊은 사고방식의 변화는 중요한 변화로 생각하지 않는 조금은 경직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예술문화운동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문화의 변화, 예술문화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타의 사회정치경제의 변화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와 경제의 변화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단지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체제의 변화는 급격하게 이뤄집니다. 그것에 비해서 사회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변화는 아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경제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순간에 사유재산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공장과 농토가 국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경제체제가 바뀌어도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거의 30~40년 동안 계속 사유재산에 대한 생각이 남

아있다는 것이지요. 노예제도 폐지된 후에도 사람들 머리 속에서는 그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그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나서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10년이나 20년 쯤 후에 문화혁명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이 홍위병 내세워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통해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변화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운동이 가장 쉬운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한국 예술문화운동의 특성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술문화운동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예술문화운동이라고 하면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래서 제가 '예술문화운동은 전문예술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마추어 예술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 보이세요? 마당극하는 사람들은 보면 예술의 전당에서는 공연할 수 없는, 좀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꽃다지 보고 있으면 윤도현 밴드 수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지요? 아닙니까? 혹은 미술도 노동자들 대상으로 길거리 전시회를 하는 화가들은, 금호미술관에서 하는 것보다 못해 보이죠? 그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노조 같은 대서 노래팀을 부를 때 꽃다지 온다고 하면 '같은 편끼리 왜 그래' 이러면서 돈을 깎습니다. 그런데 안치환이 부르는 금액은 두말없이 줍니다. 아마 서태지는 돈 더 주고라도 데려 오려고 하겠죠. 그건 원래 비싼 애들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치환이나 서태지는 그 돈 없이도 먹고삽니다. 그런데 꽃다지는 노조에서 주는 돈 아니면 먹고살지 못합니다. 노래 불러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분명 프로입니다.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냐 아마추어냐의 문제는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전업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활동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예술계 내에서 활동하지 않을 뿐이지, 아마추어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한 전업예술가, 프로이지요.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했냐 하면 우리나라 예술문화운동을 보면 예술계 내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는 운동이 있는 반면에 예술계 밖에서 활동을 중요하게 하는 운동도 있는데,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술계 내에서 활동하는 운동은 프로처럼 보는 반면에 예술계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마추어처럼 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계 밖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아마추어적이지 않고 그것도 전문적입니다. 그들은 아마추어라서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술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술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학운동, 민족문학운동을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창작과 비평』 아시죠? 요즘 대학생들은 거의 안 보는 거 같아요. 『창작과 비평』 정기구독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일년에 한번쯤은 본다? 역시 없군요. 20대에는 시사잡지를 거의 구독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본다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오마이 뉴스』 들어가서 대충 때우고 맙니다. 『창작과 비평』은 1966년

에 창간되었고 우리나라 민족문학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잡지인데, 합법적으로 출판되어 기존 출판유통경로로 팔리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민족문학작가회의'에 모여 있는 작가들 역시 대부분 작품활동을 합법적인 잡지나 단행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운동들은 철저하게 예술계 내의 활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문학운동이 작품을 발표하는 방식은 합법적 출판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팔리는 출판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이 진보적인 문학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계라는 문단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문화운동 중 이렇게 예술계 내에서 활동이 주가 되는 장르로는 문학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미술운동은 둘로 나눠집니다. 다른 화가들처럼 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작품 활동도 하면서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실과 발언' 동인들, 예컨대 임옥상, 김정헌, 같은 사람들은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발표합니다. 즉 진보적 미술활동이라고 하면서도 예술계 내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화랑에는 누가 오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도, 일년에 서너 번 미술관이나 인사동 화랑가를 기웃거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노동자나 농민이라면 더 심하겠지요. 갤러리는 그들끼리의 세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더 이상 화랑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미술인들이 그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며 그림도 싸게 팝니다. 어떻게 그림이 쌀 수가 있느냐 싶겠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판화를 찍으면 되죠. 80년대 초반에 한 장에 몇 천원, 몇 만원에 살 수 있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

때부터 판화운동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혹은 걸개그림 같은 것들은 완전히 삶의 공간에 묻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질경이'라고 아시죠? 생활한복 브랜드 중 선두업체이지요. 생활한복운동은 8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왜 한복을 예복으로만 입느냐?' 라는 문제제기로 한복의 디자인을 바꿔보고 전통문양을 티셔츠에 찍어봤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개량한복, 생활한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은, 미술대학 출신 중 갤러리 바깥에서의 미술활동을 중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화를 티셔츠 안에 넣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술계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하기도 합니다. 미술계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연극운동은, 태반이 연극계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학로 나가서 연극 돈 주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 6개월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의 태반이 대학생 혹은 20대, 30대 초반까지를 주요 관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울림 소극장에서 박정자씨 나오는 아줌마 연극 빼놓고 말입니다. 윤석화, 박정자, 손숙 이렇게 나오면 주로 이대 출신 강남아줌마들이 주요 관객들이고요. 그런 연극 빼고는 보통의 대학로 연극의 수용층은 20, 30대 젊은 미혼 남녀들, 특히 여자가 단연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정도 밖에 안 본다면 연극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사랑티켓 제도를 익숙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극계 내의 극장가에서 진보적인 연극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소수의 사람들

끼리만 하는 잔치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0, 80년대에는 검열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래서 극장을 벗어납니다. 마당극운동은 이처럼 극장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대학 캠퍼스 마당에서, 공장 마당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농촌마을에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그들과 같이 연극을 만드는 겁니다. 연극계 밖에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 비디오를 조금 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극계 내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극단들도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요. 이렇게 연극운동도 예술계 내에서 하는 활동이 있었고 예술계 밖에서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예술계 바깥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민중가요활동은 어쩔 수없이 예술계 밖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대중가요라는 것이 아주 강고한 상업주의와 어쩔 수 없는 검열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1996년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되기 전까지 모든 노래를 완벽한 검열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곡 한 곡 모두를 심의위원들이 건드리며 '이건 되는 노래, 이건 안 되는 노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후에야 음반으로 발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열이라고 하면 금지곡만 생각하는데, 사실 금지곡은 아주 운이 좋은 노래입니다. 왜냐 하면 그건 이미 사전심의를 통과해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일단 발표된 후에 무슨 일이 계기가 되어 다시 심의를 하게 된 후 금지곡이 된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사전심의'를 통과했고, 어쩌다가 '사후심의'에서 걸린 거지요. 그런데 음반으로 만들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심의에 걸리면 금지곡까지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음반 제작자가 가사까지 쓰여진 악보를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어, 이 구절은 이상

해'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유치찬란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나온 노래 중에 민해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는 노래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박건호라는 작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김민기나 정태춘처럼 삐딱한 노래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1980년대의 주류 중에 주류 창작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검열에 걸렸습니다. 이 '내 인생의 나의 것'이 1차 검열에 걸려서 나왔는데 박건호는 결과에 승복을 할 수 없어서 소명서 써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그 당시 2차 검열까지 가능해서 결국 2차 검열에서 심의를 거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디가 걸렸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알아 맞추어 보세요. '인생'이 걸렸답니다. 이유는?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인생이란 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말을 '생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를 했대요. 지금 보면 코미디죠.

더 쉬운 문제 내보겠습니다. 김광석 노래 중에서 <외사랑>이라는 노래 들어 보셨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 내 사랑 외로운 사랑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인가요. / 사랑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지만 마음하나로는 안 되나 봐요. / 공장의 하얀 불빛은 오늘도 이렇게 쓸쓸했지요. / 밤하늘에 있는 별빛 하나가 내 마음처럼 반짝거려요.

김광석 음반에 실려 있는 <외사랑> 가사의 앞부분입니다. 이 노래가 1984년 신형원의 목소리로 먼저 음반에 실렸는데 신형원의

음반에서는 한 부분이 잘렸습니다. 어느 대목이 잘렸을까요? '공장'입니다. 아주 쉽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충 압니다. 그렇다면 '공장'이라는 대목이 왜 잘렸을까요? 우리나라 심의는 당시 3가지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위신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외사랑> 이 노래는 공장에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저해합니까? 공장에서 짝사랑하면 국가헌법 질서가 문란해집니까 아니면 국가 위신이 실추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장'하면 걸렸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예는 검열이 사라진지 7~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금기의 기준이 얼마나 강고하게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공장'이 나오면 안 되죠? 이 노래가 불법파업을 선동했나요? 아니잖아요. 단지 이 노래는 짝사랑 얘기입니다. 짝사랑하는 것도 슬픈데, 대한민국의 공장에서는 짝사랑도 못합니까? 이상하죠? 그때는 '공장'이 들어가면 당연히 잘렸어요. '공장'이 들어가도 통과되는 경우는, '열심히 일합시다. 나는 희망이 있어' 이런 것들은 통과되었습니다. 사적이지 않은, 사회를 연상시키는 소재, 먹고사는 이야기와 관련된 소재에서, 슬픈 감정이 나오면 검열에 걸렸습니다. 아마 '공원'이었으면 통과되었을 겁니다. 이런 게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검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가요는 당연히 그 근처조차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없이 민중가요들은 대중가요 시장의 바깥, 즉 예술계의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영화도 충무로 판에 들어가려면 검열을 모두 거쳐야 했고, 대자본이 있어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형영화, 독립영화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있지요. 그 당시에는 소형영화나 독립영화를 만드는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술계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디'라고 부르는 것들, 인디음반·인디영화가 그 당시 모두 다 불법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노래운동과 영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작하고 자체 유통구조를 가지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계 밖에의 활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고 찍어서 남한테 제한받지 않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술계 밖에서 활동을 주요하게 하는 장르들이 있는 반면에 예술계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학이나 미술 같은 장르는 예술계내부에서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문화운동은 아마추어예술이 아니라 이렇게 예술계 내에서 활동하는 쪽과 예술계 밖에서 활동하는 쪽, 양쪽이 모두 있었던 겁니다. 양쪽은 장단점이 있지요. 예술계 안에서 활동을 한 쪽들은, 예술계 내의 세력싸움에서 후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프로페셔널하다고 쉽게 인정받아서, 기존의 예술계 내로의 진입이 쉬웠던 것이죠. 90년대부터는 민족문학 계열의 작품 중 몇몇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언급되지요. 한편 예술계 밖

에서 활동하는 쪽은, 이런 힘은 갖지 못하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과 같이 소위 고급예술계에 접근할 수 없던 사람들까지도 함께하는 대중화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술계 바깥의 활동이야말로, 예술계 안의 예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예술문화 전반의 변화를 꿈꿀 수가 있도록 한 원동력입니다. 미술운동 하던 사람이 갤러리의 바깥으로 나가 옷에 그림을 그리거나 옷 디자인을 바꿀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한복을 예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과 생활문화의 변화를 이룩해냈던 것입니다. 또 조그만 소품이나 공예품을 만들어 낸다거나 혹은 노래에서 인디문화를 가꾸어 나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 조금 더 넓게 나아간다면 생태운동이라든가 환경운동과 연계를 맺으면서 예술을 포함한 문화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예술문화운동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예술문화운동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는, 굉장히 긴 지속성과 전국적 조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제국주의 침탈을 받아 식민지경험을 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나라, 제3세계 국가, 동남아시아, 남미 등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예술문화운동이 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 예술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제일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직을 유지하면서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루면서 60년대부터 짧게 보면 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여러 분야가 연합한 협의체 ·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80년대 말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같은 전국조직체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니다. 이것은 자랑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한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단순히 반영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왜냐 하면 남북한 통틀어서 한반도라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같은 체계를 강고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됩니다. 전 국민들한테 손가락 지문 받아서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죄인도 아닌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이 제도는 일제시대에도 없었고, 1950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체계는 6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런 식의 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과 병역,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향토예비군 조직하려고 만들었답니다. 정말 박정희다운 발상이죠. 이렇게 완벽한 중앙집권적 체계, 손가락도장만 잘 찍혀지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외국의 연극을 보면 '이중결혼'을 소재로 한 코미디 연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학로에서 <라이어>라는 연극 보셨어요? <심바새떼>('심야에 바바라와 새벽엔 메리와'라는 뜻)라는 제목으로 했었습니다만, 각기 다른 주에서 이중결혼 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택시운전사인데 이 주(州)에서는 심야에는 바바라와 살고, 새벽에는 다른 주(州)에 있는 메리하고 사는 겁니다. 택시운전사니까 2교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는

거지요. 연극에는 이런 코미디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혼인신고가 양쪽 주에서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중앙집권적인 사고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교환교수로 영국에 갔다 한국에 들어올 때 세금하고 벌금 낼 것이 좀 있었답니다. 그 돈을 다 내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안 내고 올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는 영국 사람한테 '내가 이돈 안 내고 가면 나중에 입국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여기가 대한민국인 줄 아냐?'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다 전산화가 되어서 '어, 너 몇 년도에 벌금 안 냈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체계가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운동도 굉장히 중앙집권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거미줄 같은 전국조직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사회가 별로 그렇지 않은, 필리핀이나 남미 같은 나라(이들은 문화운동의 역사가 길고 또 성과도 많은데도)에서 보면 놀랍니다. 긴 지속성과 전국적 조직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예술문화운동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특징은 전통계승과 현대성 양쪽에서 모두 성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3세계의 나라와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남미 같은 경우 오래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연극들을 보면 자신들의 전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많이 잃어버려서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식민지 침탈로 들어온 스페인계 문화인지 미국계 문화인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필리핀에서는 타갈로그어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고 소수언어도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민중가요는 타갈로그어를 쓴 노래가 꽤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민족성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듣고 있자면 스페인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연극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예컨대 민요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고, 특히 마당극처럼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있는 연극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화에서 보자면 걸개그림이나 벽화에서 전통회화, 보통 탱화·불화(佛畵)와 밀접한 관련 있는 그림의 성과들, 예를 들면 홍성담이나 김봉준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희는 좋겠다. 아직도 전통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 너희들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데 쓰는구나'라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민지시대가 40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신식민지적 사회에서 오래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0세기 들어와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300년, 400백년씩 식민지 침탈을 받아온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전통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 현대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전통계승을 잘 이루고 있는 예술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한국 예술문화운동의 흐름

여러분들은 광주항쟁 당시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3·1운동이나 광주항쟁 이야기가 거의 차별성 없이 들리시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광주항쟁을 겪었어요. 물론 서울에 있기는 했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아마 제 세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25전쟁을 겪었던 부모세대에게

6·25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민군이 어떻게 쳐들어 왔고, 한강대교가 어떻게 끊어졌는지, 또 사람들 얼어 죽은 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악몽 중에 끔직한 악몽이 전쟁 나는 꿈이었어요. 공산군 쳐들어오는 꿈들, 정말 지루한 악몽 레퍼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악몽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계인 쳐들어오는 꿈이었나요? 외계인 쳐들어오는 악몽 꾸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정작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이런 전쟁 악몽이 없는데 우리 세대는 공통적으로 그런 악몽을 꾸었습니다. 왜 이런 악몽을 꾸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피난보따리 싸는 꿈, 피난을 가야하는데 나는 학교에 가 있고 엄마는 집에 있어서 따로따로 피난을 가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건가, 다리를 사이에 두고 나는 이쪽에 있고 엄마는 저쪽에 있는데 공산군이 그 다리 가운데를 가로막고 검문을 하고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꿈. 진짜 악몽이었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6·25전쟁 이야기를 들어서 생생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광주항쟁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4·19혁명이나 6·25전쟁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 3·1운동이나 해방직후 정도의 감으로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4·19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예술문화운동이 시작된 것은 4·19세대에 의해서 입니다. 4·19세대란 대학초년생 때나, 고등학교 때 4·19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1950년대 혹은 일제시대에 성장했던 이전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민주주의라든가 최소한의 민족의식을 몸으로 체득하고 자신의 힘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에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964년쯤부터 4·19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문화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문학은 왜 사회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이 굶주린 현실을 외면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기존의 부류들은 '그런 것이 무슨 문학이냐, 그런 참여문학은 곧 사회주의 문학, 빨갱이 짓이다'라며 싸움이 붙었는데 이 논쟁이 바로 순수참여논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이 최초로 경직된 순수주의 예술관, 즉 예술은 정치나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순수주의적인 예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보면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금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소설이나 춤 노래에서도 정치적인 풍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술성과는 꼭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이런 예술관이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60년대만 해도 이런 논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이야기를 예술에 담으면 통치자들이 불온시하고 나쁜 것으로 취급을 했었고, 분단을 겪으면서 좌파들이 북한으로 올라갔고 이승만 정권은 그런 경향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계명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회나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작품이 태반입니다.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가 시민혁명에서 혁명 격문을 쓴 사람입니다. 베토벤의 3번 교향곡의 표제가 'Eroica', 영웅인데, 혁명가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었다가 황제가 되어 버리니까 화가 나서

헌정을 안해 버린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베토벤은 음악으로 진보적인 시민혁명을 지지하고 제정복고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죠. 그럴 정도로 정치적인 음악을 만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듣고 있지요. 문학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이 스탕달의 『적과 흑』이라는 작품을 꼭 읽어야 한다고 해서 꾸역꾸역 재미없게 읽었습니다. 줄거리도 하나도 모르겠고 기억나는 것도 주인공 줄리앙 소렐이 귀부인하고 연애하던 것뿐인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들어 보니까 그것이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더라고요.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사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당시에 청년이 가질 수 있었던 출세의 방법은 사제가 되거나 군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흑'이라는 두 색깔은 군인과 사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 청년의 야망과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그 사회를 생생히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대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정치적인 것을 빼놓고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눈이 세모꼴로 되어가지고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해 60년대에 반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반성은 60년대 중반 4.19세대가 나오면서 본격화된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가 나오면서 이론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창작과 비평』을 만들었던 서울대 백낙청 교수는 1938년생이고 하버드대학 영문학 박사인데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창작과 비평』을 만들었습니다. 28살 때죠? 그 나이에 백낙청 교수는 중요한 글들을 끊임없이 써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입니다. 20대말에서 30대 초반은 자신의 진로, 자신의 평생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4·19세대들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고 60대 중반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연극이 그 뒤를 이었고 미술이 또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술에서는 '현실'이라는 동인들이 한국의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연극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맨날 입센, 셰익스피어 연극만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을 다룬 창작극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세기 이전에 있어왔던 판소리, 탈춤 등 전통극과의 접목이 필요하다라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서울대 연극반 학생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도 1960년대 중반 입니다. 그 당시 서울대 연극반 학생들이 김지하, 조동일, 서대석(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수) 등 이었습니다. 조동일, 서대석 교수가 '탈춤반하고 운동했단 말이야' 하고 놀랄지 몰라도 더 놀랄 것은 이 사람들이 4·19의 주동자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급 데모꾼들이었던 거죠. 4·19를 겪으면서 완전히 사고방식이 변한 이들이, 1970년대 진보적인 국학을 이루었던, 국학의 붐을 이루었던 젊은 연구자들이 된 겁니다. 학문적 성과가 10년 후 15년 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의 자각을 함께 이뤄진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광주항쟁 세대들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처럼 4·19 세대들도 그들이 겪었던 사회적 경험들이 그 이후에 예술활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문학의 성과들이 조금씩 무르익으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영상자료 : 김지하의 '오적' - 임진택 판소리

임진택씨는 연극반 출신입니다. 당시 69학번이고 담시 '오적'을 판소리로 부르고 싶어서 정권진 선생을 찾아가 판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데, 판소리체로 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의 흐름에서는 아주 일탈적인 일입니다. 김지하가 연극반이 아니었다면, 1960년대 조동일, 허술 같은 사람하고 몰려다니면서 전통연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나올 수 없는 발상인 것이죠.

<오적> 사건으로 김지하는 또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칠전에 가서 볼기를 맞은 지가 오래되어서 볼기가 근질근질하고 주둥아리가 오물오물해서 내가 이 글을 쓰면 분명히 끌려갈 텐데 그래도 쓰겠다." 이러고 '오적'이 시작됩니다. 이 대목이 참 해학적이죠? 분명히 큰 사단이 날 이야기다, 큰 건이다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런 짓을 한 것이고 <오적>을 실어준 잡지 『사상계』는 이 시 한편으로 폐간을 당하게 되죠. 물론 시 한편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래 꼴 보기 싫었는데 이 시를 빌미로 해서 결국 문을 닫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상계』 아시죠? 장준하 선생님이 만든 잡지로 1960년대 진보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잡지였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 소설과 시에서 현실을 다룬 작품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필화사건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료 문인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2년에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10월 유신' 아십니까? 들어 본적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요? 저는 1973년에 중학교를 입학했고 1979년에 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배운 헌법이 모조리 유신헌법뿐입니다. 유신헌법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과 대학교 입시를 치렀습니다. 저는 헌법이라고는 유신헌법밖에 모릅니다. 배운 것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 삼권분립이고 이것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어느 하나가 권력을 집중하지 않게 서로 권력을 나눠가지는 것이지요? 유신헌법은 사법, 입법, 행정 삼부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이 세 부를 통괄하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 놓고 박정희가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서양식 민주주의였다. 여기 유신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도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정치선전을 했고, 75년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계엄 상황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내에서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5분 만에 경찰 병력이 진입해서 우르르 학교 안으로 들어가 페퍼포그를 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75년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긴급조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긴급조치'란 말이 또 생소하시겠네요. 그렇다면 '계엄'은 뭔지 아시지요? 계엄은 국가의 변란이나 전쟁이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은 국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을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해제를 하라고 국회가 결정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행정

부의 독단을 견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일 때 위급한 변란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엄과 다를 바가 없는데, 계엄과 달리 긴급조치는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승인을 안 얻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맘대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결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치 시대에는 2명만 모여도 집회로 간주되었고, 모든 집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2명이 모일 때도 반드시 집회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긴급조치법이 있으니까, 다방에 2~3명이 모여서 정부 비판하는 것이 눈에 띄면 당장 구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면 최고 사형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법률이죠?

당시 상황을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험악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충격을 받으셨나요? 긴급조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기 얼마 전,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1~2년 후 아마 74년 쯤 일겁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여자중학교에 사격을 가르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격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시군요.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증거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증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격을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그 때 체육선생님께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황당해하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해보니까 사격은 좋은 스포츠더라' 라는 얘기를 하며 사격을 가르쳤습니다. 1년 이

상 배웠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한 총이 칼빈이었습니다. 사격이 재미는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들이 힘이 없어서 들고는 못 쏘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는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총을 배웠다고 전쟁나면 군대 가서 총 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갖도록 몰고 가야만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박정희가 그 정도의 전시체제로 몰고 나가고 자꾸 필화사건이 발생하니까 보다보다 못해 문인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말에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는 문인단체를 결성을 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운동단체이며 자유를 실현하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필화사건이나 문인들의 구속, 문학에 대한 탄압 같은 일에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는 시대에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연극운동입니다. 마당극을 중심으로 하는 연극운동입니다. 앞에서 마당극이 연극계의 바깥에서 이루어진 운동이라는 말은 했지요. 공연장으로는 기성의 극장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이는 현장 같은 데에서 연극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도요. 다음에 볼 영상자료는 1978년 김민기가 만든 음악극 <공장의 불빛>입니다. 마당극으로 연출되었고 안무자는 채희완(현재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영상자료 : '공장의 불빛'

1978년에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연극입니다. 이 시대는 비디오가 대중화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이런 영상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졸업 후 방송국에 근무하던

임진택 선생님 덕분이었고, 그래서 공연실황이 아니라 촬영을 위해 따로 공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출연한 학생들은 탈춤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안무자 채희완은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춤사위가 상당히 탈춤적인데, 탈춤 사위를 아주 현대적으로 재창조했지요.

보여드린 부분은 노동자들의 야근 모습입니다. 노동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산재를 당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결국엔 해산 당하고 해고당하면서 끝이 나는 내용입니다. 음악이 현대적이고 차갑죠. 1970년대 김민기가 저걸 만들었을 때 나이가 아마 28살이었을 거예요. 35분짜리입니다.

저 부분은 기계를 다루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장면입니다. 전통탈춤의 동작들은 모두 기계가 없었던 시절의 산물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계공장의 느낌을 탈춤 사위로 만들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안무를 했습니다. 당시 탈춤반이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 전통탈춤만 추다가 현대적인 동작들을 안무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산재를 당해서 손가락 4개가 잘린 겁니다. 산재가 생겨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화질이 엉망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민기가 군대를 갔다 와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김민기의 노래는 70년대 초반 노래들이고, 군대 갔다 와서 1970년대 후반에 상당히 민중지향적인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상록수> 같은 경우가 그 때 만든 노래로 야학 노동자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지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고 <공장의 불빛>은 그런 민중지향성의 최정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생

산 방식도 그다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김민기는 합법적인 대중가요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예 잡혀갈 각오를 하고 불법 테이프를 하나 제작한 것이지요. 그 때 그 테이프 제작해준 곳은 교회권인, 산업선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내놓게 했는데, 김민기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김민기가 유명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속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어쨌든 김민기는 35분 정도짜리 음악극을 만들었고 테이프의 앞부분은 노래가 있게 녹음을 하고 뒤 부분은 노래 없이 반주 테이프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반주 테이프를 틀어놓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 노래가 너무 어렵고 대중성이 없어서 당시 노동자들이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불법 테이프를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은 최첨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 다큐드라마 '윤상원'

이렇게 주로 문학과 연극으로 대표되어 온 예술문화운동이 1980년대가 되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광주항쟁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물은 광주MBC가 제작한 다큐드라마 '윤상원' 입니다. 광주에 가봤으니까 윤상원 열사가 누군지는 다 알죠? 도청 사수하다가 죽은 시민군 대장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들불야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항쟁을 맞게 됩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투사회보'라는 광주항쟁을 다룬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위 도중 당시 항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적어서 배포를 합니다. 드라마 '윤상원'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배역을 맡은 박효선이라는 배우는 이

작품을 쓰고 주연까지 맡았습니다. 광주에서 극단 '토박이'를 이끈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으로 항쟁 당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빚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광주항쟁 이야기만 쓰고 연출을 하다 몇 년 전에 간암으로 타계를 했습니다. 어느 잡지에선가 그를 광주항쟁의 영원한 홍보부장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영상원에 들어와 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방송영상과에 있더라고요.)

80년 봄, 예술문화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광주항쟁을 경험했던 것은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술문화라고 하는 것이 운동에서 어떤 것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고 굉장한 힘이 될 수 있구나. 문화가 어떻게 정치와 맞물릴 수 있으며 혹은 연극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내며 문화패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바로 그 때였습니다. 이후에 80년대로 넘어 오면서 운동 자체가 많이 변화했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운동도 80년대를 넘어 서면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영상자료 : 마당극 〈밥〉

이 작품은 1985년 임진택 연출의 마당극 <밥>인데, 저기 보이는 사람이 여균동 감독입니다. 김지하의 『밥』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진택이 쓰고 연출한 것입니다. 이 마당극은 1985년에 대학에 순회공연을 합니다. 당시 마당극 공연하면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데모가 잘 이루어지는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데모가 잘 되지 않던 학교에서는

마당극 하는 틈을 타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배우 다섯 명이 아주 기동성 있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의상 보따리 두어 개하고 북만 매면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공연 하다 끝에 가서는 우당탕탕 데모 터지고 경찰이 들어오면 담 너머 빨리 도망을 가야 했고요. 시작할 때는 다 같이 모였다가 끝날 때는 알아서 서울의 터미널로 모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때만 해도 살벌했던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반 즉 박정희 긴급조치시대나 전두환 초기하고는 달랐습니다. 84년부터 그래도 대학의 총학생회가 부활되었습니다. 75년부터 83년까지 대학에 총학생회가 없었습니다.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학도호국단 단장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으로부터 임명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군대식으로 만들고 군대연대장 뽑듯이 학도호국단 단장을 임명했던 것이지요. 84년부터 교내에서 눈에 띄는 경찰들을 철수시키고(프락치야 당연히 남았겠지요), 총학생회를 부활시키는 유화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문화패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활동무대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연극중심으로 진행되던 예술문화운동이 노래, 풍물, 무용, 영화, 미술이 뒤늦게 합류를 하며 성장하면서, 현장 걸개그림이라든가 벽화, 판화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자료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88년에 공연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춤극입니다. 청주의 강혜숙 춤패였고, 청주대 교수인 강혜숙이 안무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심지어 무용과 출신들도 이런 작품을 만들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교육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 청주에서 공연이 시작되어 88년에 전국 순회공연을 했거든요. 교육감들이 이 공연을 못 보게 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선생님이 공연장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청주는 청주사대, 청원대등이 무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작품의 춤을 보면 한국춤과 현대무용의 여러 기법들이 섞여 있습니다.

역시 춤운동 하면 이애주 교수의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애주는 임진택보다 몇 년 위입니다. 초기에 공연예술운동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의 누님 격이었지요. 서울대 교수의 신분으로 <바람맞이>라는 작품을 연우소극장에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에는 1987년 4월에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해서 죽은 얘기도 약간 들어갑니다. (이것을 크게 다뤘다가는 공연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처음에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경찰 발표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 말이 유명해졌지요. 그 때 박종철이 죽고 나니까 학생과 국민들의 공분(公憤)이 올라오게 되고, 결국은 87년에 6월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전두환 정권은 완전히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87년 6월항쟁은 끝을 맺게 되지요. 6월항쟁이 벌어지면서 이애주 교수는 더 이상 이런 춤을 소극장에서 추지 않고 엄청나게 큰 대형 야외공연으로 끌고 나와 버렸습니다. 연대 노천극장에 2만 명씩, 회당 2만 명씩 들어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2만 명이 연대노천극장에 모인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당시 재미있었던 건 이 '바람맞이'가 노천극장에서도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악사를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불러 가지고 상당한 제작비를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2만 명이 꽉

찼었고요, 이 공연이 문화운동권 내에서 최초로 암표가 등장한 공연입니다. 이애주 선생님은 한영숙류 승무로 인간문화재가 되었는데, 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의 춤입니다. 스승인 한영숙 선생은 제자가 저런 곳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렇게 속상해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춤은 잘 추지, 그쟈?' 그랬답니다.

영상자료 : 이애주 선생님 '바람맞이' 공연

이 장면까지는 전통춤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전통춤적인 것들이 줄어들고 전통춤을 추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안무를 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물고문당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물을 처참하게 뒤집어쓰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이 여세를 몰아 이애주는 이한열 장례식에서도 넋풀이 춤을 춥니다. 그땐 아마도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였던 거 같습니다. 다들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87년 6월에 10만, 15만이 시청 앞으로 모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죠? 작년 6월을 보면서 그때를 연상한다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한열의 장지가 광주 망월동이었는데 이애주 선생님이 신발을 신지 않고 춤을 추면서 계속 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이러면 발이 상해서 못 걸으십니다.' 하면서 뒤에서 쫓아가서 억지로 신겼다고 합니다.

87년 6월항쟁 때 이렇게 다양한 문화활동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84년부터 각 장르의 예술체가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단체를 문화실천6단체라고 해서,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족미술협의회, 민족언론운동협의회, 출판운동협의회, 민족교육실천협의회 등의 문화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미 저기 있는 사람들, 이애주의 춤패 신, 마당극 하는 연희광대패(아까 본 <밥>을 공연한 팀입니다), 한두레 등, 걸개그림 그리던 미술패 두렁, 영화 만들던 서울영상집단 등이 모두 민중문화운동협의회라는 조직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에 저런 대형공연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87년 6월항쟁이 끝나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곧이어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술문화운동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운동이 대중화되면서 예술문화운동의 성과도 대중성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중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식인과 학생들한테 몰려 있던 활동과 성과가 노동자·농민이라고 하는 기층민중으로까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문학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과 노동자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만들어지고 전국의 모든 노조에서 풍물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민중가요는 학생과 지식인이 먼저 부르기 시작하면 노동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노동현장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한 노래가 학생과 지식인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업가> 같은 노래들이 그런 거죠.

또 하나의 대중화는 미조직 대중들, 대중문화 시장의 공간으로의 대중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화되어 있던 대중들 소위 운동권이나 학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87년 이후부터는 공개적인 공연장에서 포스터 붙이고 당당하

게 합법적인 공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중가요를 합법적인 음반으로 내기도 합니다. 노찾사 음반 2집이 70만장이 팔렸어요. 88년 가을인가, 동성고등학교 대강당(2천5백석 정도)에서 공연을 했는데 완전히 만석이었고, 계단까지 관객이 앉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영상자료 : 노래를찾는사람들 공연 〈끝나지 않는 노래〉

이 화면은 노찾사의 소극장공연 실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래사를 엮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자 쪽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영화운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영화운동은 좀 늦게 출발을 한 편이죠. 아무래도 기자재가 필요했고 영화 창작이라는 기술이 그다지 대중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몸으로 하는 공연처럼 이른 시기부터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요. 말만 가지고 하는 문학 이게 가장 쉬운 것이고, 몸뚱이 가지고 하는 연극 이게 좀 어려운 것이고, 기자재 가지고 하는 영화는 제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87, 88년 되면서 영화패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곳은, 최근 송두율 교수 이야기를 다룬 <경계도시>라는 영화를 만든 홍형숙 감독이 속했던 서울영상집단입니다. 또 '노동자뉴스제작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역시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감독이 활동했었던 '푸른영상'도 있습니다. 몇몇 집단들이 80년대 후반에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볼 것은 노동자뉴스 제작단에서 만든 뉴스비디오입니다. 노동자 자신의 이야기를 노동자의 시선으로, 노동자의 손으로

담아내려고 한 뉴스입니다. 처음에는 보름에 한번 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정기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상자료 : 노동자 뉴스 3호

89년 5월 말에 나온 겁니다. 5월 1일 노동자 대투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경찰들이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영상인들이 찍었죠. 혈서를 쓰는 장면이죠. 시위대와 경찰들이 대치하는 저런 장면 보세요. 어떤 시선으로 카메라를 잡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경찰이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이 들죠?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면 늘 경찰이 불쌍하고 노동자들만 과격하게 느껴지지요.

89년은 전국노동운동협의회가 아직 결성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전노협은 민주노총이 생기기 전에 있던 조직이었는데 1990년 1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노협 결성하기 이틀 전쯤 여당과 야당이 합당해서 거대여당을 만듭니다.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합니다. 원래는 여소야대의 정국이었는데 김영삼이 여당한테 붙어 버리자 여당이 커지게 됩니다. 3당 합당을 하여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바뀌게 되는 90년 이후에는 전노협과 민자당이 맞붙는 그런 대결 구도로 가게 되었고 운동의 역량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노동운동이나 문화운동에서 한 달이 멀다하고 대형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애주의 '바람맞이' 공연에서 시작한 연대노천극장 공연은 90, 91년으로 가면서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1990년부터 94

년까지, 매년 3월만 되면 노천극장에서 대형노래공연을 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노래판굿 <꽃다지>라는, 연극과 풍물과 춤과 노래가 엮여진 대형공연도 했습니다. 경희대 노천극장이나 한양대 노천극장에 모여서 2, 3만 명이 북적대는 공연을 보아야만 속이 풀린다는 매니아들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춥고 비가 오는 악천우 속에서도 4시간씩 하는 공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뒷풀이까지 하고 가는 열성파들입니다. 집회장만 따라다니는 장사꾼, 커피아줌마, 오뎅아줌마, 소주와 오징어 파는 아저씨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조직력이 강하고 정보력이 뛰어난 지, 대학생 집회 때에는 학생들도 잘 모르는 장소에까지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먹는 장사가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이지요. 나름의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1992년 이후에 문민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부터 문화운동이 더 이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활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법인체가 되어 완벽한 합법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정부로부터 사업 지원금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총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지금은 예술문화운동이 종료된 것일까요? 독재가 없어졌고 시위를 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화운동의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예술문화운동의 성과

우리 예술문화운동의 성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식민지경험과 분단경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기형적인, 서구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주의 예술관을 타파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순수주의를 많이 몰아냈을 뿐 아니라, 이른 제도 속에서 관철해내어 검열을 철폐해냈습니다. 청소년이 부르는 대중가요에서 '인생'이란 단어가 검열에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든, 엄마 욕을 하던, 선생을 벌레라고 하든, 시청 앞에 태극기가 삐딱하게 걸렸다고 하든, 하여튼 대중가요 음반이 검열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방송심의야 있지요. 황신혜 밴드가 부르는 <못생긴 얼굴>을 보면 방송심의를 염두에 둔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있지요. 이 노래가 한돌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판잣집이 헐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가사 중에 '개새끼 개새끼 나쁜 사람들 엄마 울지 마세요'란 구절이 나옵니다. 음반에 사전심의가 사라졌으므로, 사실 '개새끼'란 말이 나와도 음반이 나오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방송심의에는 당연히 걸릴 구절이지요. 이것을 의식해서 황신혜밴드가 그 악악거리는 목소리로 '개……끼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송에는 나오게 됐는데, 원래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가사를 바꾸고 싶지는 않고, 방송에는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 '이 부분을 잘랐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쓴 거죠. 황신혜밴드다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심의 때문이고요, 그냥 음반만 내고 공연활동만 할 거라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도가 달라졌고,

우리의 의식 수준도 달라졌습니다. 별별 소리를 한다고 해도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도 그렇고 수용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노래들에 너그러워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내 이런 예술문화운동이 줄기차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유포시켰고, 이것의 발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성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고양입니다. 예술문화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고급예술 · 지식인예술만이 예술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당연히 예술문화운동도 지식인부터 노동자 · 농민층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의 여러 예술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농민 같은 기층민중에게까지 예술문화의 혜택을 준다는 시혜적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술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고(그 질이야 어떠하든 간에)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예술문화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 예술문화운동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여러 계층들이 고루고루 좀더 풍요로운 예술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바꾸어내는 것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세 번째는 이식문화사에 대한 반성이죠. 우리나라 근대현대문화는 다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강대국을 전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까지 일본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과 서구가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세련됨의 기준이 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뽕짝은 촌스럽고 리듬 앤 블루스는 세련되게 느껴지나요? 뽕짝은 옛날 것이고 리듬 앤 블루스는 미국적인 것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10년 전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십시오. 고현정 얼굴이 왜 이리 뚱뚱합니까? 여자 인기 탤런트의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더 빼쪽해집니다. 80년대 초반에 인기 있었던 유지인, 정윤희, 60년대 인기 있었던 윤정임 모두 얼굴이 아주 동그랗습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탤런트들의 얼굴은 아주 비정상입니다. 그 때 기준으로 보면 김혜수나 하희라 정도가 정상이지요. 요즘 김혜수가 드라마 <장희빈>에 나오는데 아주 뚱뚱하게 느껴지지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즘 미인은 얼굴이 뾰죽해야 하고 다리도 길어야 하고, 코는 높아야 하고, 입도 커야 하고. 이것들은 모두 백인 중심적인 미감이지요. 영화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지배를 받는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범으로 삼아 왔던 강대국의 예술이 우월하고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에 황인종이 나오면 이국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황인종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백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현상입니다.

예술문화운동은, 우리가 결코 동아시아의 황인종인 한국 사람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예술문화사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좀더 민족주의적이고 탈식민주의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예술문화의 역량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전통예술의 현대적 계승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이 역시 예술문화운동의 굉장한 성과입니다.

또 하나는 앞의 이야기를 아울러서 예술문화의 정책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술문화가 다양성이 가능하려면, 예술 민주주의가 이뤄지려면, 민족적인 문화를 하려면 대체 어디다 돈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고 예술인들을 어떻게 그룹 지어서 어느 부분은 풀어줘야 하고 어느 부분은 더 조여 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구도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 나간 것도 이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후반에 나온 문화연대 같은 활동들은 70, 80년대 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운동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다양성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혹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낯설어 했던 것,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바위처럼> 노래 배우다가 마지막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불편했던 것, 우리 머릿속은 아직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술문화운동에서 제기하고 성취하려 했던 것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러한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술문화운동의 목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활동방식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술문화운동은, 예전과 달리 정책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정책적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학 문화패 활동과의 거리감이 커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시위문화로서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괴리가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얌전하게 강의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어르신들이 강의만 하셔서 재미가 없었다고 주최 측이 압력을 넣어서 볼거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한정된 이미지뿐이어서, 예술문화운동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조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물로 보여드리려니까, 문학운동의 성과라든가 미술운동의 성과를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록들은 집회문화 중심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활동으로는 일상적인 문화활동이 더 많습니다. 아쉽게도,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본 이미지를 너무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